

한국문화교류 소식

15호 2015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박갑수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한·중·일의 '설' 문화



박갑수

본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하루가 달리 세계는 지구촌화하고,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다. 입버릇처럼 단일민족이라던 한민족사회도 다민족의 교류장이 되었다. 민족 간의 관계는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상호간에 학습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교류되어야 한다.

한·중·일은 전통적 농경사회요, 유교문화권으로 많은 공통요소를 지닌다. 그런 가운데 각 민족은

그 나름의 고유문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양 3국이 좀 더 우호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이문화(異文化)를 알고 교류해야 한다. 이에 한·중·일의 세시풍속 가운데 '설' 문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전통적 '설'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다. '설'은 일 년의 기점으로, 근신하는 날로 알려진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벽사(辟邪)진경(進慶)을 기원한다. 중국에서는 '설'을 '춘지에(春節)', 일본에서는 '쇼가쓰(正月)'라 하여 명절로 친다.

둘째, 시절음식으로 세찬, 제주를 마신다. 이날 절식(節食)으로 흰떡과 떡국을 먹는다. 이를 세찬이라 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떡국은 떡을 알팍하게 둔같이 썰어 장국에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끓인 다음 고춧가루를 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오늘 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북쪽에서는 세찬으로 만두가 많이 쓰였고, 남쪽에서는 강정(羌釘)이 쓰였다. 제주(濟州)는 상충부에서는 중국에서 유래한

초백주(椒柏酒)와 도소주(屠蘇酒)가 쓰였고, 일반에서는 약주, 청주, 탁주를 사용하였다.

셋째 세배를 하고, 세함을 드린다. 설날의 대표적인 풍속의 하나는 세배를 한다는 것이다. 집안 어른 뿐 아니라, 동네 어른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였다. 이때 어른들은 “올해는 꼭 과거에 합격하게.,” “돈을 많이 버시게.”라고 덕담을 하였다. 관청의 하급 관리들은 세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함(歲餼)을 건네었다. ‘명함(名餼)’을 그 집의 대문 안에 비치해 놓은 쟁반에 놓고 왔다. 왕기(王鎰)의 ‘우포잡기(寓圃雜記)’에는 서울 풍속에 하객은 책상 위에 비치해 놓은 백지로 된 책에 이름만 적고, 환영·환송하는 일은 없다고 쓰고 있다. 높은 관원은 대궐에 문안을 드리러 입궐한 것이다. 오늘날은 이 풍습이 많이 바뀌었다.

넷째, 세화(歲畫)를 보내고, 벽에 붙인다. 세화의 풍속은 임금이 십장생(十長生)을 그린 그림을 하사하여 문이나 벽에 붙였고, 향간에서는 닭과 호랑이 그림이 액을 물리친다고 하여 이를 벽에 붙였다. 닭의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을 붙이는 것은 중국의 벽사(辟邪)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밖에 용호도(龍虎圖)와 처용상(處容像)도 벽사의 그림으로 사용되었다.

다섯째, 덕참을 하고, 오행점을 친다.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첫번째 들려오는 소리로 일 년의 길흉을 점쳤다. 이를 덕참(德譚)이라 한다. 중국 연경에도 이와 유사한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밤옷같이 생긴 작은 나무토막을 던져 오행점(五行占)을 쳐 신수를 점치기도 했다.

여섯째, 설날 황혼에 머리카락을 태운다. 일 년 동안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빗 상자 속에 모아 두었다가 이날 황혼에 태운다. 그러면 나쁜 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일곱째, 야광신을 두려워하여 어린이는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잠을 잤다. 야광(夜光神)이 이날 밤에 아이들의 신을 신어보고 맞는 것이 있으면 신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불길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잠에 들었다.

여덟째, 중들이 떡을 바꾼다. 절에서 떡을 만들어 중들은 이를 속세의 떡과 1대 2로 바꾸었다. 어린이들이 이 떡을 먹으면 마마를 곱게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춘절 문화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춘절의

경축 활동은 원단(元旦) 하루에 그치지 않고, 왕왕 15일, 심하게는 정월 말까지 계속된다. 이는 신불(神佛)과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맞으며, 봄을 맞이하고 복을 받으며, 풍성한 수확 기구(祈求)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월 초하루에는 문을 열고 우선 폭죽을 터뜨린다. 옛날에는 폭죽이 귀신과 역질(疫疾)을 쫓는다고 믿었다. 폭죽을 터뜨린 뒤에는 신년을 축하한다. 이는 우리 풍습과 같다. 명함으로 축하하는 것을 비첩(飛帖)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와 다소 달라 문에 ‘접복(接福)’이라 쓴 부대를 매달아 여기에 명함을 넣게 되어 있었다. 이날엔 금기가 많았는데, 비질을 하지 않는다, 물을 뿌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었다. 이는 재물을 모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초2일은 시집간 딸이 친정을 찾아오는 귀녕일이고, 북방에서는 재신(財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다. 초3일은 소년조(少年朝)라 하여 땅을 쓸지 않고, 불을 옮기지 않고, 물을 길지 않았다. 초4일은 영신일(迎神日)로, 신선을 맞아 보살핌을 구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날 가게 주인은 점원을 소집, 신을 영접하였는데, 이때 만일 누가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해고라는 것을 의미했다. 초5일은 파오(破五)라 하여 지금까지의 금기를 파기했으며, 다섯 재물의 신인, 오로 재신(五路財神)을 예배함으로 재신이 자기 집에 임하도록 빌었다. 초6일은 송궁일(送窮日)로 정월 닳새의 쓰레기를 다 쓸어냄으로 가난의 운명을 내쳤다. 초7일은 인승절(人勝節)로, 인류의 생일이다. 신화 중의 여제(女帝) 여와(女媧)가 사람을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춘권(春卷), 합자채(盒子菜) 등을 먹으며 여와의 공과 업적을 기린다. 이는 뒤에 아들을 기구하는 구자일(求子日)로 바뀌었다. 이밖에 정월 보름 원소절(元宵節)에 이르는 많은 세시풍속이 있다.

이 외에 특별한 풍속으로는 닭이 문덕(文德), 무덕(武德), 용덕(勇德), 인덕(仁德), 신덕(信德)의 오덕을 지닌 새라 하여 정월 초하루를 닭날이라 하여 중시한다는 것, 설날 음식으로는 교자(餃子), 춘권(春卷), 연고(年糕)를 주식으로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쇼가쓰(正月)’는 신년을 축하하는 축일로, 공식적으로는 양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이나, 관습적으로는 마쓰노우치(松の内)라는 설날의 장식을 하는

기간인 7일까지를 가리킨다. 이때에는 신사(神事)를 참배하고, 지인을 찾아 신년 축하를 하고, 설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독특한 설 문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금줄을 치고 문에 장식을 한다. 설 때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말라고, 원새끼로 금줄(시메나와)을 치고, 문 앞에 소나무와 대나무로 장식하여, 풍작의 신을 맞이한다.


둘째, 거울떡(鏡餅)을 신에게 바친다. 크고 작은 둥근 떡을 두 개 쌓아 신에게 바친다. 거울은 옛날에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셋째, 하쓰히노데(初日の出), 및 하쓰모데(初詣)를 한다. 신도(神道)에서는 태양이 가장 신성한 것이므로 우선 해맞이를 하고, 그 뒤 신사나 절을 찾아 일 년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넷째, 세배를 다닌다. 연초돌이(年始回り)라 하여 우리와 같이 세배를 다닌다. 예전에는 친족이 큰집에 모여 축하하는 것을 '넨시마와리'라 하였다.

다섯째 전통적인 요리를 먹는다. 세찬으로 조니(雑煮)라는 떡국을 먹고, 야채 조림을 비롯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 재수 좋은 음식을 도시락에 담은 오세치 요리를 먹는다. 떡국은 우리와 차이가 난다.

여섯째, 연날리기 등 전통적 민속행사를 한다. 악마를 몰아내고 행운을 부른다는 사자춤, 연날리기 등 민속행사를 한다.

한·중·일의 설 문화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서로의 이동(異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양 삼국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함으로 공동 문화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위해 문화교류 운동은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4 ICKC 송년회

2014년 12월 29일(월), 2014 ICKC 송년회는 본회가 후원하는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어울사랑 송년 음악회'와 함께 하였다. 한국 전통춤에 이어 실내악단 어울림의 공연으로 우리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느끼는 행복한 연말이 되었다.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은 한국 음악 연구를 위해 후원한 본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아리랑파크추진위원회, 영화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 격려

파독근로자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자 본회 부속 기구로 만들어진 아리랑파크 추진위원회의 박관용 고문, 강성구 위원장 외 임원 7명은 2월 13일(금), The K-Hotel에서 영화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과의 만남을 가졌다. '국제시장' 흥행을 축하하고, 고난의 인생길을 지나 온 우리 시대 아버지를 감동으로 그려낸 그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국제시장 열풍으로, 한국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던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회 아리랑파크추진위원회 사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고 윤제균 감독 또한 추진위원회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태권도 세계화' 를 위해



박연환
미국 태권도 지도자 연맹 회장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로 개척 정신과 용기만 있다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땅이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이민자들이 꿈을 성취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때문에 각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정치·경제·문화·체육·금융·교육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의 오픈 마인드! 그것은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태권도 교육은 미국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좋아하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은 학부모들로부터 검증 받은 지 오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부모의 말에 대한 긍정적 반응, 자신감, 참을성, 겸손 등의 태도변화가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제 태권도는 미국 공교육과 가정교육 현장에서 도(道)와 예(禮)를 중시하는 정신적 교육 과목, 체력 단련 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할 시점이다.

태권도 교육은 학교, 교회, 가정 등에서 배울 수 없는 덕목을 가르친다. 즉 성품, 능력, 태도, 신념 등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한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배우면 자신도 모르게 예의, 기술, 바른 정신을 겸비한 참 태권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인성과 품격이 변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뒤쫓아 태권도 마니아가 된다.

태권도를 미국의 공교육 현장에 폭넓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프로그램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공립학교 진출을 위해서는 태권도 사범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믿는다. 태권도 사범들의 자질, 언어 능력 향상 등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태권도는 얼마든지 미 공립학교의 정규 체육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와 언어까지도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안겨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현장 적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은 대학과 군에서 대표 선수단을 역임했다. 1978년 정부 파견으로 남아프리카의 독립 왕국 레소토에서 2년 근무를 마친 후 1980년, 뉴욕에 정착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미국 팀 국가 대표 코치로 활약했고 미국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을 거쳐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회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들 간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불협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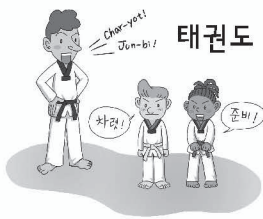
의 악영향으로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연맹의 법적 운영권을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송두리째 넘겨주어야 했다. 그것은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미국에서 겪었던 최대의 굴욕이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인들이 중심이 된 연맹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자와 운영 부실로 회장이 수차례 바뀌었다. 현 브르스 헤리 회장은 본인이 연맹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국제 심판을 역임한 정통 태권도인으로, 이때의 인연으로 2014년 12월부터 나와 콜로라도의 이한원 사범은 처음으로 이사에 선임되어 일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 연맹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있지만 동료 선·후배들의 협조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선배들이 설립했던 미국 태권도연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인 태권도 리더들이 힘을 모아 한인 사범이 중심이 되는 연맹 부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분열과 갈등 대신 연합을 통해 미국올림픽 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직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로서 전 세계에 뿌리를 내



뉴욕 오픈 태권도대회에 참석한 리아 산체스 미스USA(태권도 4단)의 사범 린지 오래되었으며, 국외 태권도 조직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이다.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 태권도 조직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태권도 사범들의 국외 취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한국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 확장, 그것은 남북통일은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태권도 기사

태권도, 2020 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태권도가 2020년 도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한때 올림픽 퇴출 후보로 손꼽혔지만,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나이와 성별,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세계인이 함께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로 지위를 굳혔다.

태권도는 지난달 3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회에서 도쿄 패럴림픽 22개 정식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유니버시아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이저급 국제 스포츠 이벤트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지난 2009년부터 패럴림픽 진입을 위해 세계 대회를 5차례 개최했고, 국제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원 WTF 총재는 “패럴림픽 진입은 장애인 태권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마지막 과제인 커먼웰스게임(영연방경기대회) 합류로 국제 대회 정식 종목 그랜드슬램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출처_ 중앙일보 2015. 02. 17.

하하 호호 한글 반



김해경
사우디 젯다한글학교 교사

보통 사우디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쇼핑과 외식이 이뤄지고, 명절이나 휴일엔 친척 방문 등이 주가 되고 있으며, 여자들의 운전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좁은 편이고 일상이 단조롭다. 거기에다 이 곳 젯다는 건기와 우기 간 조금의 온도차는 있지만, 날씨가 연중 덥다보니 '오늘이 어제 같고, 캄박하노라면 지금이 봄인지 가을인지, 좀 헷갈리는 곳' 라고 한국 교민들은 말한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가진 또래의 친구들과 한글학교에 모여, 한글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해 보는 일은, 한글 반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동호회 같이 참 신나는 사회활동인 셈이다. 넘쳐나는 젊은 에너지를 발산해보고 싶고, KBS world를 통해 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글학교에 모여든다. 물론 SNS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과 문화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숨은 공로자가 아닐 수 없다.

여자아이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에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는 얘기가 있다. 대학시절 나와 친

구 몇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획-하면서 가을바람이 낙엽 무리를 우르르 몰고 갔다. '포르르, 포르르' 바람과 함께 낙엽들이 무리지어 굴러갔다. 쫓기는 듯한 뒷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서 함박웃음이 동시에 터졌다.

한글 반에서 아랍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이들도 별 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다. 하루는 제이납(가명, 사우디)이 나와 한글 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뒤 한글학교 운동장에서 제이납 아버지의 차를 기다렸다. 일부는 다른 차로 이미 출발했고 일부는 제이납과 같이 가기로 했다. 이곳의 아버지들이 서틀 버스 운전사처럼 딸들을 한글학교와 집으로 열심히 실어 나르는 것을 보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우리네 말이 생각난다. 이곳의 부모님들도 시대의 흐름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걸까? 한국 문화가 다소 낯설 수도 있고, 정작 본인은 선생님인 나와는 눈도 안 마주치는 성향을 가졌음에도, 말없이 딸의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 주고 계신다.

딩동! 하는 소리에 제이납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반갑게 양쪽 볼을 맞추며 우리를 맞아주었다. 외국인, 자국민, 무슬림, 비 무슬림, 즉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은 외출 시 입어야 하는 옷이 있는데, '아바야'라고 부른다. 문 바로 안쪽에 걸려있는 옷걸이에 아바야를 순서대로 걸고 나니, 마치 검은 물결의 아바야 가게 같았다. 어느 집에서처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되었고 학생들과 나는 소파에 주욱 둘러앉았다. 차 한 잔씩을 하면서 한참동안 이야깃거리를 피우고, 구운 양고기, 호모스와 빵으로 점심을 먹었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바닥에 앉아서 먹는 팀은 한국식으로 먹는다고 하며, 열심히 수다를 떨고 웃

는다. 식사 후 게임하는 시간에는, 지금은 좀 고전이 된, ‘엉덩이로 이름쓰기’ 벌칙을 소개해 주었다.

잠시 후 제이납의 어머니와 들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딸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학생들과 비슷하게 스물이 조금 넘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딸은 이미 삼십이 넘었으며 결혼도 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해 결국 이혼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딸은 그 후유증으로 몹시 힘들어하였고, 현재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 딸은 한글학교를 알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생활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셨다. 돌이켜보니 제이납은 연필 끝 지우개 부분에 프린트한 종이 태극기를 붙여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었고, 방학 중이어서 한글수업을 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 초말(정말) 보고 싶어요.”하는 메일을 자주 띄웠었다. 뜻밖에 어머니로부터 딸에 대한 사연을 듣고 나니, 제이납이 겪었을 맘고생이 내 속에서 재현되듯 아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글 공부, 고착상태에 놓인 그녀 인생의 한 시기에, 해결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에,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저 감사하고 놀랄 따름이었다.



사우디 젤다 한글학교에는 현재 40명 이상의 아랍 학생들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예멘, 시리아,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 필리핀 등 인근 중동국가들의 중·고·대학생들이 주말마다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늦잠자고 싶은 휴일 아침의 유혹을 이기고 온다.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오는 학생들도 수업이 시작되면, 금세 입이 귀에 걸리면서 모두들 즐거워하는 분위기로 변한다. 어떤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 바로 이들의 한글공부에 대한 열정,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렇다. 더 많은 중동지역의 학생들이, 나아가 더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해 주길 바라며, 그 관심 속에, 제이납처럼 각 개인 삶의 풍요로워지길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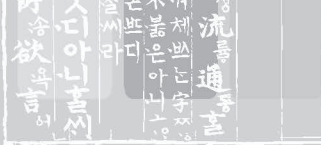
한국어 기사

서부 호주 마운트롤리 중고교 한국어 정식과목 채택

서부 호주 퍼스의 한국어 열기가 K팝 무드에 힘입어 뜨거워지는 가운데 한국어가 정식과목으로 처음 채택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운트롤리(Mount Lawley) 고등학교 정재익 교사의 열정과 서부호주한인회(회장 안병운)와 서호주대학(UWA) 명예교수진, 시드니 한국어교육원,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동포들이 응원해 준 덕이다. 지난 2월부터 마운트롤리 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9일에는 교내에서 K팝 댄스팀을 비롯해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날-Korean Culture’s Day’ 행사를 펼쳐 큰 인기를 모았다.



출처_ 재외동포신문 2015. 02. 23.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 포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참석하시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 언어·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시 2015년 3월 30일(월), 15:00~17:30

장 소 한국방송통신대학 역사관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총 회]

[포럼] 주제: 한국어·문화교육, 그 새로운 방향

강사: 한국 어 - 권순희 교수(이화여대)

한국문화 - 이기중 교수(전남대)

◆ 찾아오시는 길 [한국방송통신대학 & 만찬 장소]



-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100m 직진
→ 방통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 2층입니다.
-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은 방통통신대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 * 행사를 마친 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신호원 T.02-745-9246).

후원금 보내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 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